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가동

전주시, 경제민생 · 방역의료 민간 전문가들과 1차 회의 가져

전주시는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지역 의료·경제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가 다음 달 시작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속한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지역 의료·경제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은 김승수 전주시장을 단장으로, 경제민생·방역의료 분과 민간 전문가 18명 등 총 19명으로 꾸려졌다.

경제민생 분과의 경우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연합회장, 이완열 전주시상인연합회장, 황정호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 경제학박사, 홍광식 전라북도관광협회 사무국장, 박정웅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장, 김성혁 문화작업실 시간 대표, 정명례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전주완산구지부장, 양순기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전주덕진구지부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방역의료 분과에는 전주시 보건의료자문관을 맡고 있는 권근상·이주형 전북대병원 교수를 비롯해 양종철 전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윤용순 예수병원 기획조정실장, 성병주 대자인병원 행정원장,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 김남수 전북대학교 학생처장, 이범규 전주대학교 기획부처장, 노용순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김명희 전주시 감염병관리과장으로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전환 내용과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계획 전반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은 뒤 분과별 논의가 이어졌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소비촉진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다뤄졌으며,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확진자 재택치료 등 안전한 방역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향후 시는 이날 나온 의견과 정부의 지침들을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계획에 반영할 방침으로, 주기적인 분과별 회의를 열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지속가능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완성하는 데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그간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축됐던 시민들의 삶에 활기를 넣어주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단계별 일상회복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 온·오프라인 개최

시, 28~30일까지 일본 · 영국 · 호주 등 해외연사 온라인 참여 팔복예술공장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 아이들을 도시의 사용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도시의 창조자로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놀이에 음악, 노래, 춤, 몸짓 등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예술놀이의 역할과 의미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28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새로운 시대, 일상으로 가는 예술놀이'를 주제로 '제3회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 2021'을 개최했다.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포럼으로 열린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일본, 영국, 호주 등의 해외연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팔복예술공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마련됐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예술놀이를 살펴보고, 앞으로 예술놀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게 올해 포럼 개최의 취지다.

30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포럼은 첫째 날 '국제 컨퍼런스', 둘째 날 '광역네트워크 포럼', 셋째 날 '예술놀이 체험행사 및 특별전시' 등 각각의 주제로 운영된다.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 아이들을 도시의 사용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도시의 창조자로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특히 김 시장은 일방적이 아닌,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예술교육을 강조했다.

일본의 이시도 나나코 디지털 에혼 대표의 '미디어를 활용한 유희'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 뒤에는 백령 경희대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영국의 팀 길(Tim Gill) 플레이 잉글랜드 이사와 호주의 제시카 윌슨(Jessica Wilson) 차일드 네이션 운영자, 한국의 정형호 민속학 박사가 참여하는 주제발제도 이어졌다. 이후에는 박진희 상상창고 숨 대표와 김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협력팀장, 김은주 한국전통문화전당 우리놀이진흥팀장이 함께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이틀차인 29일에는 '예술교육을 위한 협력과 관계 맺기'를 주제로 국내 예술놀이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서는 광역네트워크 포럼이 운영되며,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전통과 예술놀이, 몸짓 예술놀이, 촉감 예술놀이 등 시민과 일반인들이 직접 예술놀이에 참여하는 예술체험 행사도 실시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외국 선진사례는 물론 예술놀이의 중요성과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예술놀이터를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의 꿈과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예술교육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050 탄소중립' 실현 지역사회 동참 이어져

전주시, 전주시 상인연합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등과 업무협약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전주시 상인연합회와 탄소중립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 자영업자들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유도했다. 시는 27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와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 상인연합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냉·난방 효율 높이기 △전자기기 사용 시 전력소비 최소화하기 △저탄소 인증제품 및 우리 지역 농축산물 구매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생활화하기 △자체 탄소중립 교육 실시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시민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북은행 및 농협 5개소 등 금융계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 금리 우대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시는 또 시청사 인근 카페 18개소와 탄소중립 실천협약을 맺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도 벌이고 있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향후 종교계 및 유관 단체들과 탄소중립 릴레이 협약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전 시민이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 선정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7일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입회 하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을 선발했다.

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 당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 아동 · 청소년 양육자 대상 성 인권 교육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본)는 28일 장애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와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성인권 교육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나 양육자들이 장애 특성에 따른 성행동을 이해하고 성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강사로 나선 이상은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발달수준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 지도법 △장소에 따른 성 예절 △성 인권 침해사례 및 대처법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양육자들의 성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점검해 봄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진됐다.

심기본 센터장은 "지역 내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 현장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각 학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로 찾아가 성폭력·성평등 교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